코스피 상장사 1분기 순이익 '반토막'…금융위기 이후 최악

18조8424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7.68% 줄어…매출액은 증가

IT·제조 동반 부진 코스닥 순이익 26% ↓…2분기까지 이어질 듯

국내 상장사들이 올 1분기 우울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코스피 상장사들의 올 1분기 순이익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코스닥 상장사들도 정보기술(IT)과 제조업 동반 부진 여파로 수익성과 재무 안정성이 모두 악화했다.

전문가들은 상장사들이 경기 부진으로 올해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적을 내 역성장할 것이나 하반기에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코스피 상장사 연결 영업이익·순이익 반토막=17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 622개 상장사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순이익은 18조8424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7.68%(25조6779억원) 감소했다.

매출액은 697조3744억원으로 5.69%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25조1657억원으로 52.75% 줄어들었다. 영업이익은 역대 두 번째로 많았던 작년 1분기 50조5105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상장사 이익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50% 이상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친 2009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2009년 1분기에 전년 동기와 비교해 영업이익은 56.76% 줄었고, 순이익은 81.45% 감소했다.

올해 1분기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률은 3.61%, 순이익률은 2.70%로 각각 작년 동기보다 대폭 낮아졌다.

매출 비중이 9%를 웃도는 삼성전자를 제외해도 코스피 상장사의 1분기 실적은 저조하다. 연결 매출은 작년 동기보다 8.87% 증가했으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37.34%, 47.98% 감소했다.

삼성전자와 1분기에 4조9000억원의 순손실을 낸 한국전력공사 두 기업을 빼고 집계한 코스피 상장사 연결 매출은 612조350억원으로 8.22% 늘어났으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30조7031억원, 22조1791억원으로 34.57%, 43.31% 감소했다.

코스피 상장사의 재무상황은 연결 부채비율이 1분기 말 기준 114.85%로 작년 말보다 2.2%포인트 높아져 석 달 새 나빠졌다.

반면 코스피에 상장한 금융회사들은 1분기에 호전된 실적을 거두면서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됐다.

금융업종 42개사의 연결기준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5조3103억원과 11조6987억원으로 각각 9.57%, 10.94% 늘어났다.

순이익 규모는 금융지주 6조4957억원, 보험 2조9874억원, 증권 1조2659억원, 은행 7266억원 등 순이다. 순이익 증가폭을 보면 증권(41.98%), 보험(19.25%), 은행(12.26%), 금융지주(3.86%) 순으로 컸다.

◇ 코스닥 상장사 순이익 26% 감소…IT·제조 동반 부진=코스닥 상장사들은 1분기에 성장성·수익성·재무 안정성 모두 나빠졌다.

코스닥 상장사 1115곳의 연결기준 1분기 매출액은 67조636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5% 증가했다. 그러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2조4902억원과 2조4950억원으로 각각 42.2%, 26.3% 감소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순이익률은 모두 3.7%로 각각 3.2%포인트, 1.7%포인트 낮아졌다.

정보기술(IT) 산업과 제조업 코스닥 상장사 영업이익이 각각 86.0%, 25.5% 감소하면서 영업이익률이 각각 1.1%, 4.2%에 그쳤다.

1115개 코스닥 상장사의 연결 부채비율은 110.7%로 작년 동기(107.5%)보다 3.2%포인트 높아졌다.

650곳(58.3%)이 1분기에 흑자를 냈으나 465곳(41.7%)은 적자를 기록했다. 이 중 182곳은 적자로 전환했으며 283곳은 적자를 지속했다.

◇증권가 "올해 전반적으로 실적 부진…하반기 완만한 회복 기대"=증시 전문가들은 전 세계 경기 부진 여파로 상장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2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높은 금리와 물가로 생산 비용 부담이 커져 기업들이 이중고를 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여파는 최소 2분기까지 이어져 연간 실적도 역성장이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무엇보다 수출이 급격히 늘어나거나 환율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반도체 실적이 2분기에 더 나빠져 상장사 전체 실적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선 기업 실적이 2분기나 하반기부터 완만한 수준의 개선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기업 실적이 1분기에 저점을 기록하고서 2분기에 조금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삼성전자가 반도체 감산에 들어갔고, 계절적으로 반기 말에 판매를 늘려 1분기보다 실적이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미국 경기 침체가 이연된 측면이 있어 2분기와 3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 개선될 수 있지만 내년에도 좋을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기자 mskim@·연합뉴스

광주은행 "해외거래 부담 줄여요"

글로벌 트래블 체크카드 출시…국제브랜드 수수료 캐시백 등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해외여행과 해외 직구 등 해외거래 시 다양한 혜택을 주는 글로벌 트래블(Global Travel)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

글로벌 트래블 체크카드는 해외 가맹점 이용 시 고객이 부담해야 했던 해외 국제브랜드 수수료(거래 미화금액의 1%)와 해외서비스 수수료(거래 미화금액의 0.2%)를 캐시백으로 지급하고, 해외 ATM 출금 수수료(건당 최대 3불)도 캐시백 지급한다.

또한 국내외 가맹점 이용금액의 0.2%의 캐시백을 익월 10일에 결제계좌로 지급한다.

유동구 광주은행 카드사업부장은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반면 고환율로 인한 고객들의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 했다"면서 "앞으로도 빠르게 변하는 소비 트렌드를 파악하여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카드 상품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산단공, 광주 산단 통합안전관리지원 협의체 발대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황상현)는 17일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 협업체계 강화와 안전관리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광주 산단 통합안전관리지원 협의체' 발대식을 개최했다. 〈사진〉

산단공은 협의체 발대식에 이어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 대상 합동 안전점검 및 안전지원사업 패키지 지원, 재난안전사고 합동대응, 정보 및 데이터 공유·연계, 협업과제·정책 추진 등 기관별 활동을 상호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체에는 광주북부소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광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 등 6개 안전유관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협의체 출범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산업단지 혁신대책' 중 산업단지 안전관리 대책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그간 산업단지 내 안전관리는 안전전문기관이 개별법에 따라 분산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으나, 제조업·위험물 취급기업 등이 밀집된 산업단지보다 통합적인 안전관리 필요성 증대에 따른 조치다.

황상현 본부장은 "산안협 출범을 통해 산업단지 차원의 체계적인 통합 안전관리 추진기반이 마련됐다"며 "6개 안전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광주지역 산업단지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

내수 진작 '민생활력 온도 +5℃ 캠페인'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온누리상품권 구매 등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회장 임경준)는 경제심리 회복과 내수 진작을 위해 '제35회 중소기업주간'(5월 15~19일)을 맞아 지난 16일 '민생활력 온도 +5℃ 캠페인'에 돌입했다. 〈사진〉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는 이날 광주시 동구 대인시장을 방문해 온누리 상품권으로 총 130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물품을 구입한 뒤, 해당 물품을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지역 복시시설에 기부하기로 했다.

한편, 전국에서 진행되는 이번 중소기업계의 민생경제 캠페인의 슬로건은 '민생활력 온도 플러스 5℃'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투자와 소비, 고용과 수출 분야에서 최소 한가지 지표 이상은 전년대비 5% 이상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는 내수진작과 소상공인 활력 회복을 위해 연말까지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을 중심으로 온누리 상품권 1억3000만원을 구입할 예정이다.

임경준 회장은 "약자가 약자를 돕는다는 상생 정신을 중소기업부터 선제적으로 실천해가자는 생각으로 온누리 상품권 구매 촉진 및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 등 민생활력 캠페인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캠페인이 경제 활력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대기업 등 경제 주체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NH농협생명 전남총국, 모두레 어린이 금융 교실

완도 소안초등학교서

NH농협생명 전남총국과 소안농협은 지난 15일 완도군 소안초등학교에서 재학생 40여명을 대상으로 한 '모두레 어린이 경제 금융 교실'을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돈의 개념과 역할', '용돈과 소득', '저축과 보험', '농협과 협동조합의 이해' 등에 대한 다양한 참여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모두레 어린이 경제 금융교육은 NH농협생명이 금융교육 소외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경제 금융 이론 등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는 교육 지원 사업이며, NH농협생명 임직원들이 직접 강사로 활동한다. 또 NH농협생명은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1사1교'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다양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현주 전남총국장은 "학교 측과 소안농협의 배려로 이번 교육이 잘 진행돼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농촌지역 어린이들이 올바른 금융지식을 함양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키르기스스탄 농업부 역량 강화 초청연수 성료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과수원예 산업·정책발전 공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이하 센터)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키르기스스탄 농업부 및 지자체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

센터는 지난해 6월부터 글로벌 아동권리 NGO 굿네이버스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코이카)에서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으로 추진하는 '키르기즈공화국 통합적 농촌개발사업'에 농촌개발 정책컨설팅 과업을 수행해왔다.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은 개발도상국가의 '지속가능 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에서 수행하는 협력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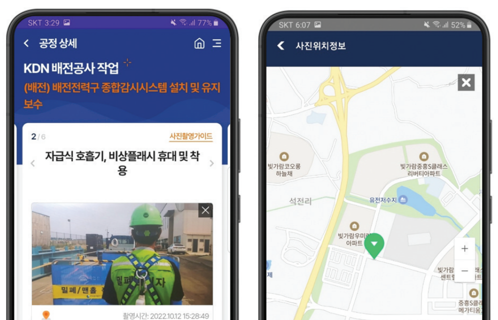
이번 초청연수 프로그램은 정책컨설팅의 일환으로 한국의 과수원예 산업 및 정책발전 경험 공유를 통해 키르기스스탄 농업부 및 지자체 공무원들의 과수 클러스터 개념 이해 및 관련 정책 수립·이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센터는 한국 과수산업의 발전사, 과수산업 및 연구 동향, 과수원예 협동조합의 역할 및 운영 등을 주제로 국내 전문가 강의를 제공했다. 또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나주배원예농협,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등 한국 과수산업 발전 관련 다양한 기관을 직접 둘러보고 담당자와 인터뷰하는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전KDN, 현장안전관리시스템 확대

모바일 앱 활용 작업 전 실시간 안전점검·공사 결과 보고



한전KDN은 '현장안전점검시스템' 확대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재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17일 밝혔다.

한전KDN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로 인한 현장 모니터링 및 안전관리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현장안전점검시스템' 개발을 계획하고, 6개월의 개발과 수개월의 시범운영을 통한 검증 끝에 지난 4월 말 회사 전체에 설치를 완료했다.

한전KDN의 '현장안전점검시스템'은▲공사정보 조회 ▲작업/공종 등록 ▲작업 전 안전관리 ▲SMS 알림 기능 등을 주로 한 모바일 앱〈사진〉 2종과 ▲공사정보 입력 ▲공종별 등록 사진 관리 ▲위험성 체크리스트 및 안전회의록 등 관리 기능의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구성됐다.

현장 작업자용과 감독자용으로 개발된 시스템은 모바일 앱을 활용한 실시간 안전 점검 확인과 작업자 위치 확인이 가능해 현장 작업 과정에서의 불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또 공사 관련 서류 등의 자동 보고 관리로 효율적 업무 수행을 지원하여 효율적 통계작업 및 도식화를 통해 개선된 안전관리와 업무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한전KDN 관계자는 "기업의 안전경영책임은 이제 안정된 기업 경영과 조직 구성원 및 가족들의 행복을 보장하는 기본이 되었다"면서 "작업 개시 전·후의 실시간 안전 점검 및 종료 후 관리까지 지속적인 공정 관리를 통해 모두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작업 현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94.66(+14.42)
↑	코스닥	834.19(+17.44)
↑	금리(국고채 3년)	3.274(+0.032)
↓	환율(USD)	1337.20(-1.40)